

건물 관리소장에서 발생한 후두암

성별 남성

나이 61세

직종 건물 관리소장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는 2008년 8월부터 약 11년 6개월 동안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목소리 변화로 2020년 2월 10일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2020년 2월 27일 미세후두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 후두암을 진단 받아 방사선 치료 후 현재 요양가료 중이다. 근로자는 건물 유지보수 작업 시 석면, 라돈, 황화수소, 그 외 보일러 발생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고용 전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설치 사업을 약 15년, 지하수 개발사업을 약 10년간 영위하였다. 근로자는 이후 200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2월 27일 상병 진단 시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동계(11월-3월)에는 토요일 09시-월요일 09시, 화요일 06시 50분-수요일 09시까지 근무하였다.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계절에는 일요일을 쉬고 나머지 6일간 09시-18시 주간근무를 실시하였다. 근로자는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수리작업, 조명기구 교체작업, 보일러 가동, 정화조 전극봉 청소작업, 물탱크 전극봉 청소작업을 실시하였다. 근무인원은 주간근무의 경우 소장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 작업자가 주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하였던 지하 3층은 지하공간의 특성 상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타일을 교란하는 경우 작업장의 밀폐, 물질의 습윤화, HEPA필터가 장착된 국소배기장치 활용,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취급 등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근로자는 석면함유자재를 취급 시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9년 8월부터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20년 2월 10일 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후두 내시경에서 우측 성문에 종괴가 확인되었다. 육안상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2020년 2월 27일 미세후두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 편평세포암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12일부터 수술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7주간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 종결 후 현재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2014년 이비인후과의원 에서 후두부종으로 4차례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당시 의무기록상 라인케부종로 진단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본 상병과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비인두 혹은 후두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는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이며, 2014.12.23.에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시술 받은 이력이 있다. 2015.12.08.에 촬영한 뇌 MRI 및 SPECT 검사상 과거 경색 소견 및 척추-뇌저 동맥중후군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7.08.24.에 뇌혈관 CT상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에 동맥류가 확인되어 현재 신경외과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2020.03.06.에 시행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로 관상선암증으로 진단되어 2021.04.16.에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근로자 진술상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의무기록상 흡연력은 약 10갑년(1일 10개피, 총 20년)으로 확인된다. 후두암 수술이후 현재는 금연 중이다. 또한 음주력은 주 1회 소주 2병으로 확인된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20년 2월 27일 미세후두수술 및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상 후두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근로자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약 11년 6개월간 건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배관 수리작업, 손상된 텍스타일 및 조명기구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환경적 유해인자로는 강산 미스트, 석면, 고무산업, 머스터드 가스 노출 등이 있다. 흡연과 음주 또한 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위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텍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후두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